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33



Contents

2012.05

3

• KC임원 워크숍

4

• 5月 FMM



5

• 석탄산업훈장수상
• KCMS축구대회



6

• 이광수대리 인터뷰



9

• KCMS 지역봉사활동
• 한미산업 산학단합회
• 파견직원면담

[KC Network] 임원 워크샵 개최

지난 4월 20일 당진 파인스톤에서 KC임원 워크샵이 있었다. KC Network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는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KC환경서비스, 안성유리, 베를리아ES&K에코사이클, 클레스트라 하우스먼, NWL, KC한미산업, KC호남환경, KC솔라에너지, KC에너지아 그리고 Nol-Tec의 각 임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형성하였다. 이날 워크샵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형곤 경영자문단님의 “중소기업 CEO의 성공전략” 강의로 신규 임원 소개 및 각 사별 소개를 하며 각 사의 대표들이 모여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다.



KC Networks 임원: 총 42명 참석

번호	회사명	성명	직위
1	KC그린홀딩스	이태영	대표이사
2		고재영	사장
3		김정환	전무
4		김종열	감사
5		윤계근	사외이사
6		송영수	상무보
7		서동영	총괄부사장
8		신영만	부사장
9	KC코트렐	박기서	전무
10		최영희	전무
11		송우일	상무
12		임창호	상무
13		고덕영	상무
14		이기환	상무
15		정순호	상무보
16		전종필	감사
17	KCES	김보근	사외이사
18		이재영	사장
19	KCEC	이석구	전무
20	KCCL	김동현	상무
21		정문택	전무
22		박진영	상무보
23		이석구	상무
24	안성유리	노성규	상무
		이선영	상무

번호	회사명	성명	직위
25	Ecocycle	박정철	사장
26		이태수	상무
27		하두근	사장
28	Clestra Hauserman	김종오	부사장
29		임영재	상무
30		박용하	상무
31		임경빈	상무보
32		김성중	상무보
33		김정환	사장
34	NWL	윤종석	전무
35		이강욱	사장
36	KC한미산업	서종필	상무보
38	KC호남환경	채수백	상무
39	KC솔라에너지	강태일	전무
40		신성룡	상무보
41	KC에너지아	윤진아	사장
42	NOL-TEC	Fabio Novelli	



[KC 코트렐]FMM 실시

첫 월례모임인 First Monthly Meeting(FMM)이 5월 7일 본사에서 열렸다. 모임은 지난 인사단행으로 코트렐 총괄업무를 맡은 서동영 부사장의 진행으로 SMART한 업무능력을 위한 방법과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SMART한 업무는 창의적 생각을 기반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을 때 가능한 것이며, 라이프밸런스를 위한 회사의 업무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K-one(이하 KMS)활용을, 직접 제시하며 이에 대한 토의를 나눴다.

한편 지난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명칭 공모 당선자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시상도 진행되었다.

당선 명칭 : K-ONE

의미: KC모든 직원들의 지식을 하나(one)로 모으자



안성유리공업 2012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석탑산업훈장 수상

안성유리공업㈜ 생산팀 제조의 이광수 대리가 영예의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2012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안성유리의 이광수 대리 등 246명에게 포상하였다.

이광수 대리는 1995년 안성유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6년간 제조 현장에서 유리병 생산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생산량 증대 및 고품질 제품생산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영(노사) 협의회 근로자 대표로 활동하면서 안성유리의 안정적인 노사 문화 정책에 크게 기여하여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역경을 극복하고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안성유리 이광수 대리 인터뷰 p6 참조

KCMS 족구대회

KCMS는 4월 한 달 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간 화합 도모와 친선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족구 대회를 개최하였다.

매주 점심시간을 활용한 예선을 거쳐 4월 26일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승한 대한수출포장에는 5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고 2위와 3위를 차지한 KCMS 생산1팀과 생산2팀에도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경기 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식당에서 보쌈과 막걸리로 조출한 파티를 열어 근로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당신의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
2012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인터뷰 모음집

07# 석탑산업훈장 안성유리공업(주) 이광수 대리



석탑산업훈장
안성유리공업(주)
이광수 대리

“모두가 함께라는 ‘상생’의 마음으로 뚝뚝 땀 흘린 안성유리공업입니다”

투명한 유리병을 보며 이 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굵은 땀방울을 쏟았을지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까? 유리는 얼음처럼 투명하지만 뜨거운 열과 씨름을 해야 탄생할 수 있는 땀의 결실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안성유리공업(주)(이하 안성유리) 이광수 대리를 만났다.

창의력과 정밀한 기술력의 조합

이 대리는 생산 공정의 제조담당 대리로 약 35년간 유리 제조분야에서 근무 중이다. 40년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안성유리공업에서 그는 회사의 작은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터줏대감이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돼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모든 공을 안성유리공업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운도 따랐고 함께 한 결과가 좋았습니다. 안성유리 기업문화가 알차고 미래지향적이며 협동·단결을 강조하는데 직원 모두가 이를 함께 지켰기 때문에 회사도 저도 이런 영예의 자리에 왔네요.”라며 겸손의 말을 건넨다.

안성유리공업에서 이 대리가 하는 일은 성형공정. 유리물을 녹여 부품과 제품에 맞는 온도를 재형성해 성형을 하는 공정을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비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에 맞춰 성형을 하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다.

“같은 음식이라도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맛있게 보이는 것처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기술과 창의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정성으로 작업하고 집중해서 완성합니다.”

생산공정 중 제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 대리는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과 원가 절감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정비 시간은 작업자와 회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달에 한번, 10개를 20개로, 관련 점검 항목과 분야를 확대하면서 정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입사 당시와 비교하면 업무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동, 반자동으로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에서 자동화가 도입된 것이죠. 전자장치가 가미되면서 일일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업자와 회사가 모두 편한 환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소통의 ‘힘’

이 대리는 2008년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노사 협의회 대표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구조조정 인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원만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당시 회사 인수합병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직원들의 양보와 회사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회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과 논리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함께라는 마인드로 전체가 노력해준 것이죠.”

안성유리공업 이봉영 경영지원팀장은 “이광수 대리는 업무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만 노사협력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로자 지원은 물론 작업 환경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죠. 서로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모두가 공감되도록 만들어 조율로 마무리합니다.”며 이 대리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40년이라는 역사에서 인수합병 IMF 등 안성유리공업의 우여곡절과 함께한 이광수 대리, ‘상생’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광수 대리의 인생관에서 유리산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5년 뒤 이광수 대리를 찾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을 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KCMS 나눔 경영 지역봉사활동 -서운 초등학교 영어수업

KCMS는 작년 12월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의 위해 서운 초등학교와 결연을 맺었다. 결연식 이후 나눔 경영 실천을 고민하던 KCMS는 그 일환으로 서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생산팀 사라반안 대리의 자원으로 주 3회 일과 시작 전 30분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KCMS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앞장 설 것이다.





KC한미산업" 상반기 단합 산행대회"

지난 04월 07일 토요일, KC 한미산업(주) 가족이 애사심 강화와 직원 간의 친목 및 소통을 위한 한마음 극기 훈련으로 경남 창원시 소재 저도(옛 마산 콰이강의 다리) 둘레길을 산행 했습니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관계로 모든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강욱사장님과 직원 일행은 회사에서 8시 집합하여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고 마산 구산면 저도로 출발 했습니다.

저도 둘레길은 해발 200M의 산 정상을 중심으로 많은 둘레길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3시간 코스를 선택했고, 남해 푸른 바다를 계속 보면서 걸어 개나리등 꽃과 함께 자연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A, B, C 3개 팀으로 편성하여 각 팀 전원이 정상에 도착하면 우승하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산행하는 동안 각 팀이 단결심과 협동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였고, 그 결과 A팀이 우승하였습니다.

KC한미산업은 전년도에 신규 폐수공장을 준공하였고 2012년 05월에는 소각로 개선 공사 및 폐열보일러 설치공사를 합니다.

이번 산행으로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소각로 개선공사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산행을 끝내고 생선회와 소주 한잔으로 " 계속 발전하는 회사.계속 변화는 KC한미산업을 위하여"라고 건배하고 이강욱 사장님 인사말씀을 끝으로 산행을 모두 안전하게 마치었습니다.

-끝 -

특집: 파견직원 면담결과 보고

카자흐스탄 오강환 상무

보낸 사람: 오강환

보낸 날짜: 4/17/2012 3:41:17 AM

받는 사람: 최영희; 박승원

참조: 서동영

제목: 파견직원 면담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 밤도 많이 깊었습니다.

벌써 저희가 여기 온지도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파견 전, 모두 참 많이 암담했었는데, 이제는 참 많이 평온합니다.

1년 전 KC직원을 아무도 여기에 오기를 꺼려했었고, 저를 저승사자같이 여기며 시선을 피했었고, 제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왔었고 벌써 일년도 넘어갔습니다.

파견 1년을 도래하며 파견 전, 파견 조건을 1년으로 약속했던 사항도 있어 이것을 지켜야 하므로, 당사자 의향과 개인별 현황도 파악하고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양식 없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전원 모두 파견으로 인한 개인 건강과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제일 다행스럽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여기 있는 직원들 모두 개별면담을 하였지만, 이 Project는 우리가 시작했으니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충하며 우리가 끝내야 한다고, 자발적인 의견 일치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발전민수, 해외사업부장님께서서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기는 별판뿐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황량한 별판뿐입니다. 휴일이 걱정될 정도로 너무 삭막한 곳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었지요.

작년 겨울에는 우즈베키스탄 배추를 구해다 직접 김장해서 김치를 만들어 지금까지 먹고 있고, 감자도 심어 자급하고,

거실에 망을 쳐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지하공간에 탁구장을 만들고 운동하고,

올해는 넓은 텃밭을 갈아 온통 한국산 야채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무, 상추, 얼갈이, 아욱, 파, 오이, 호박, 당근, 부추, 시금치, 서리태, 고구마 등, 아직 수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업무에 고군분투하고, 숙소에서는 또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들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걱정은 모두 한가지로, 오지에 장기간 있다 보니, 정보와 교육에 뒤쳐져서, 복귀 시 소외 당하지 않을 까 하는 순수한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부사장님, 사업부장님께서 모두 거두어 주시길 것으로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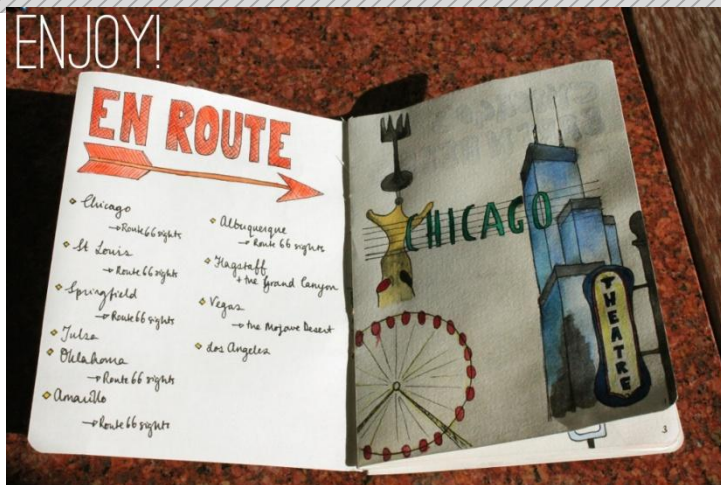
제가 이들에게 해줄 약속은 그것뿐입니다.

여기 일은 제가 책임지고 여기 전사들과 해결하겠습니다.

사기 잃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 드립니다.

카작에서

오 강환 올림



지 원 팀 이 상 민 팀 장
제 철 사 업 부 김 규 백 사 원
기 획 팀 윤 제 연 대 리
해 외 사 업 부 김 재 수 선 임
관 리 팀 이 정 식 과 장
임 원 정 문 택 상 무
관 리 팀 최 성 관 차 장
기 획 팀 여 주 희 사 원

재 무 관 리 팀 홍 세 라 주 임

관 리 팀 서 정 철 부 장

기 술 지 원 팀 홍 정 희 팀 장
베 트 남 지 사 염 동 균 법 인 장
업 무 팀 김 유 화 사 원
관 리 팀 조 은 주 차 장
업 무 팀 정 행 순 차 장
에 너 지 아 이 유 미 사 원
지 원 팀 배 수 정 과 장
재 경 팀 이 강 호 사 원
전 략 구 매 팀 정 희 정 사 원
지 원 팀 하 혜 진 사 원
지 원 팀 이 상 한 사 원

KC NEWSLETTER

E d i t i n g T e a m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